

# ‘배아복제’ 연구와 생명의 존엄성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VS “난치병 환자 고통 외면 말라”

지난해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공개롭게도 복제인간 ‘이브’가 탄생했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클로네이드사가 복제인간을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러한 소식을 알리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를 불을 지폈다. 97년 복제양 ‘돌리’가 영국에서 탄생한 이후 세계의 여론은 인간복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급기야 세계 각국은 인간복제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복제에 관해 정부 내 관련 부서인 과기부와 보건부

지부는 의견이 달랐다. 과기부에서는 난치병 연구와 국내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체세포 복제연구 규제를 좀 더 완화하자는 입장이었고, 보건복지부는 그 반대였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처럼 이견을 보이자 국회의원들이 법안 마련에 나섰고, 과기부안을 지지하는 법안 2개, 보건복지부안을 지지하는 법안 1개 등 총 3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7일 생명공학 연구허용범위와 생명윤리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6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4시간여에 걸쳐 열린 토론을 벌인 결과, 인간복제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데는 모두 찬성했지만, 배아복제에 대한 허용여부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팽팽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아복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며,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쪽에서는 인간의 난치병 연구와 국내 생명공학발전을 위해 엄격한 규제 하에서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배아복제에 관한 클로네이드사의 포스터. 복제인간이 탄생했다는 클로네이드사의 충격적인 발표는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를 불을 지폈다.

었다.

배아복제는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복제와 불임시술에 쓰여지고 남은 잔여 배아를 활용한 잉여배아복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배아는 수정 또는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로부터 분열된 세포덩어리인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또한 체세포 핵이식이란 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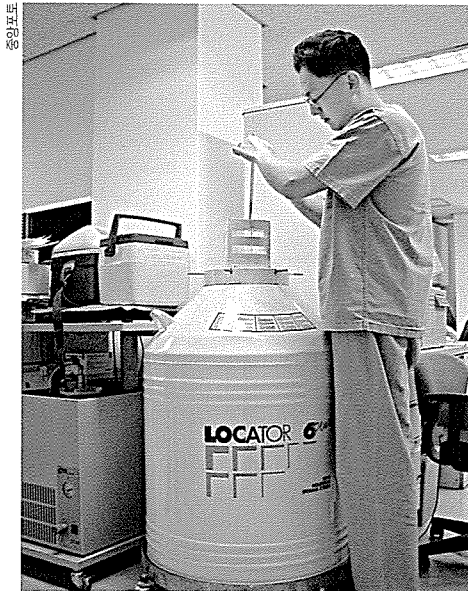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제인간 탄생은 체세포 핵이식을 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여 출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로

복제인간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인간복제 금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견

인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배아복제를 허용하느냐 여부이다. 배아복제연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명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생명은 무엇보다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아는 잠재 인간으로 태어날 잠재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만 만들어져야 하는데, 연구용으로 배아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편 배아복제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다르다. 난치병 연구를 위한 체세포 복제는 인간의 체세포에서 핵을 분리하여 핵이 제거된 미수정 난자에 주입한 뒤 배아를 만들기 때문에 정자와



중앙포토

인공수정을 위해 고환조직을 냉동 보관하는 모습. 현재 국내의 불임 부부는 전체 부부의 15% 이상이다.

난자의 결합에 의한 수정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복제인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에 체세포 핵이식 실험 자체를 제한하면 치료복제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아복제 금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불임부부는 전체부부의 15% 이상이며, 국내 불임전문병원에서 폐기되는 배아는 연간 10여 만 개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임부부용 시험관 아기기술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배아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폐기하는 행위는 괜찮은 것인지, 이왕 버려지는 배아를 좀 더 연구한 후 폐기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수정되기 전의 인간의 정자와 난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심장 이식수술 같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는 행위는 신의 뜻에 맞는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 배아복제 법안과 우리의 미래

지난번 공청회에서 유전적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둔 어머니가 제발 배아복제연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다. 현재 유전병 환자들은 전체인구의 5%에 이르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배아복제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생명공학연구자들의 주장이다.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2001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9000명으로 사망원인에서 1위(24.4%)를 차지했으며, 또 다른 난치병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위를, 10대 이하에서는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0년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는 111개의 난치병이 있으며, 약 109만 명이 이러한 난치병으로 고통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복제기술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만일 우리나라가 배아복제연구를 법으로 금지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금지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요즘 연구 개발은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어느 한 국가에서 허용할 경우 연구원들은 그 나라를 찾을 것이며,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한 국가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영국과 중국은 사실상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아복제 법안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은 아직 미진하다. 생명윤리 확보와 생명공학연구가 서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가 보다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간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을 국회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내가 속한 상임위에서는 앞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사회전반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를 빌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개진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2003년 1월 16일경 씌어진 것입니다) ☞

글\_김형오 | 국회의원